

고흥,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본격화

고흥군이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을 본격화 한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나로도수협 권역 해상풍력 공존위원회 출범 준비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고철웅 나로도수협장과 나로도 전체 어민 대표위원 25명, 수산발전민관협의회 등 총 33명이 참석해 위원회 운영방식과 지역 해상풍력 현안을 논의했다.

해상풍력 공존위원회는 어민과 수협이 해상풍력 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지역 해상풍력 현안을 발굴·연구·검증하는 기구다.

지난 9월 해상풍력 대규모 반대 집회 이후 군과 수협이 함께 지역 갈등을 봉합하

고 어민 협의체를 출범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출범 회의에서는 공존위원회 운영 규정을 의결하고 공동위원장 등 어민 대표위원을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는 타 지역 해상풍력 관련 현안 보고와 함께 해상풍력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공영민 군수는 “어민이 동의하지 않는 해상풍력 개발은 추진하지 않겠다”며 “군이 책임지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어민이 주인이 돼 개발 여부와 방식까지 직접 결정하는 해상풍력 개발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공존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된 고철웅 나로도수산업협동조합장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민간 주도의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 권한을 다시 우리 어민이 되찾게 돼 매우 뜻깊다”며 “진정으로 어민이 주인이 된 해상풍력을 수협과 어민들이 군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공존위원회를 시작으로 지역 내 양대 수협인 고흥군수협·나로도수협과 함께 연례 ‘공공주도 해상풍력 대군민 상생·공존 대화’를 개최해 어민과 상생할 수 있는 해상풍력 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와 올해 2건, 75억 원 규모의 정부 해상풍력 연구사업에 선정돼 정부 연구기관들과 함께 2GW 규모의 ‘해상풍력 계획임지’를 개발 중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나로도수협 권역 해상풍력 공존위 출범...어민·수협 주도 개발
공영민 군수 “투명한 정보 공개...개발 여부·방식 직접 결정”

순천 ‘프라이빗 가든런’...관광·치유산업 모델화

시, 순천만국가정원서 올해 첫 행사...참가자들 ‘호응’
생태자원 기반 치유·웰니스 가능 “힐링프로그램 확대”

순천시와 순천만국가정원을 달리며 힐링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오전 시 간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장 전 공간을 활용한 ‘프라이빗 가든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정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프라이빗 러닝 프로그램이다.

고요한 새벽 정원의 생태 치유 환경을 활용해 잔잔한 물안개 건 중앙호수 정원, 동이 뜨는 새벽 해돋이, 단풍숲길 등 국가정원만이 가진 독보적 경관을 배경으로 진행돼 전국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새로운 정원 활용 모델로 주목받았다.

특히 프라이빗 가든런은 단순한 러닝 프로그램을 넘어 자연 치유와 생활체육을 결합해 정원산업의 범위를 확

대하고, 이를 치유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가정원이 가진 기반 자원을 활용한 정원 경제화 실현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 참여자들은 “멋진 풍경을 보며 행복권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아침 풍경을 눈에 가득 담고 올 수 있어서 기억에 남을 아침 러닝이었다”, “매력적인 이벤트가 사람을 끌어당긴다”, “순천은 인3제나 기대가 되는 곳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모두가 달리기를

통해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러닝 본연의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가든런을 계기로 시즌별, 대상별 치유형 힐링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원 기반의 새로운 관광·치유산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내년 수익사업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례가 됨과 동시에 정원을 관광·문화·체험기반의 경제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천 정원경제학, 가든 노믹스의 실질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곡성, 3道 자매결연 전통시장 한마음 축제 ‘상생 교류의 장’

전남·전북·경남 13개 전통시장 상인회원 200여명 참석

곡성군은 최근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3도 자매결연 전통시장 한마음 축제’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한마음 축제는 전남·전북·경남의 13개 전통시장 간 교류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각 전통시장의 상인회원 200여명이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를 이뤘다.

전남의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영광 굴비골시장, 무안 전통시장, 나주 목사고을시장, 담양 전통시장, 전북의 전주 신중양시장, 고창 전통시장, 진안 고원시장, 장수 전통시장, 경남의 거창 전통시장, 지리산 함양시장 등 총 13개 전통시장이 참여해 풍성한 교류의 장을 펼쳤다.

행사장에는 참여 시장 간 특산물을 공유하는 부스 운영과 전통시장의 정취와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옷놀이 대회, 시장별 대표가 참가한 상인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화합 행사를 넘어, 전통시장 간 성공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시장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영수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13개 전통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길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장 간 교류를 확대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최근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3도 자매결연 전통시장 한마음 축제’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축제는 지역 간 상생과 전통시장 활성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군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광양 도심미관 훼손 사업비 부족 방치...“도로변부터 고사목 제거”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확산되면서 도심지까지 고사목이 발생해 도시미관을 크게 흐리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고사목이 그대로 방치돼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24일 광양시와 지역민들에 따르면 최근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되면서 산림은 물론 주요 도로변까지 고사목이 대거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방제하거나 벌목하는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가 크게 부족, 방치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은 고속도로, 지방도로, 컨테이너 전용도로변은 물론 도심지, 농촌 가립 것 없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제하거나 고사목을 벌목하는 병해충 방제사업비는 증액되지 않고 기존대로 편성되고 있어서 고사목 방제는 커녕 피해목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 경우 병해충 방제사업비는 지난해 16억9400만원, 올해 16억2600만원이었는데 편성 중인 내년도 사업비는 11억 1600만원 (재해대책비 4억원 제외)으로 되래 감소하고 있어 고사목 방제와 제거



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벌목해 철거한 재선충 고사목은 7166주이며, 하반기인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2억 5000만원을 들여 추가로 950주 벌목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 500여주에 그칠 전망이다.

광양시에 남아있는 고사목은 현재 6600주 (5월 기준)에 달하고 있는데, 재선충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9000여주로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고사목 완전제거에는 총 5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양=김광진 기자 kkgjin@

장흥, 마음건강 힐링 프로그램 성료

올해 ‘마음비움과 채움’ 6회 운영

장흥군은 최근 전남도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마음비움과 채움’ 마음건강 힐링 프로그램 총 6회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행사는 정서적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재난 유가족, 민원응대 직장인, 산모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회기로 진행했다.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남도마음건강치유센터가 연계해 옴니핏 (우울, 스트레스감사), 아로마테라피·한방족욕, 진신 마사지, 편백숲 토틀길 맨발걷기, 정신건강 예방 교육 등 심리 지지를 위한 내용으로 운영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다.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해 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우울·불안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여수, 내년 ‘청년 맞춤형 인턴’ 100명 모집

여수시는 미취업 청년의 실무 경험 지원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본인이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부모가 5년 이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45세 미취업 청년이다. 단 2019~2025년 이연 사업 참여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인턴들은 신청서에 기재한 희망 기관, 보유 자격증, 전공, 거주지 등을 총

합적으로 고려해 배치된다. 근무지는 시청, 공공기관, 복지관, 지역이동센터, 관광·문화 관련 기관 등이며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1개월간 인턴 근무를 하게 된다.

신청은 문서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여수시청 경제일자리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12월 17일 공개 추첨을 실시한 후 12월 19일 최종 참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